**2018 삼총사영광총회 [격려] 원고**

**( prezi.exe 를 실행시킨 후 ▶ 표시를 클릭하시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안녕하십니까 00지부 장년부 000입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하는 격려를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누군가를 격려할 때도 있고 격려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 한국SGI 장년부는 회원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따뜻하게 격려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격려"라는 말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먼저, 격려의 여왕이라 불린 엘리자 컴퓨터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엘리자는 1966년 미국의 대학교수가 개발한 대화 소프트웨어입니다.

사용자의 말에 바로 대답하고 질문까지 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심리치료사"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 그러나 엘리자를 통해 컴퓨터가 단어를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사람과 마음을 통하고 격려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 그래서 엘리자를 개발한 바이첸바움 교수는 스스로 프로젝트를 중단하게 됩니다. 격려는 인간의 진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메라비언 박사는 실험을 통해 인간이 의사소통을 할 때 무엇이 중요한지 증명했습니다.

'힘내요'라는 격려를 할 때를 예를 들면, 말의 내용이 미치는 영향은 불과 7%이고, 나머지 93%는 격려하는 사람의 태도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잘했어'라고 말 하면서 차가운 말투로 비웃으며 말한다면, 상대가 칭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불쾌해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이처럼 격려는 단순한 말이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생명으로 서로 주고 받는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일본의 한 병원에서는 시설이 좋은 신병동의 진통제 사용량이 구병동보다 3배나 많았다고 합니다.

최신식 병동은 벨을 누르면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오지만, 구병동은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결국 소리뿐인가, 아니면 자신을 위해 달려와 주는 사람이 있는가의 차이였습니다.

▶ 격려하다 는 영어로는 인커리지(Encourage)라고 합니다.

이 단어 속에는 심장(cour)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진정한 격려는 자신의 ‘심장’을 주듯이 온 힘을 다해서, 상대방에게 진심을 다해 용기를 주는 것을 뜻합니다.

▶ 진심의 격려는 살아가는 힘을 꽃피웁니다.

여기 작은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에 적당한 햇빛과 물을 줘야 싹을 틔우고 자랄 수 있습니다.

인간도 무한한 가능성의 씨앗을 가지고 있고, 진심의 격려를 통해 끝까지 지지 않고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진심을 다한 격려로 삶을 꽃피운 사례는 많습니다.

유명한 헬렌켈러는 2살 때 시력과 청력을 완전히 잃고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절망에 갇혀 있을 때, 인생의 스승, 설리번 선생을 만나 가능성의 씨앗이 싹을 틔웁니다.

설리번 선생의 헌신적인 격려로 헬렌켈러는 시청각 장애인 최초로 박사학위 수여자가 되었고, 20세기를 대표하는 위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인간에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최고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울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처와 같은 무한한 가능성의 씨앗이 불종입니다.

불교 최고의 가르침인 법화경은 진정한 행복을 꽃피우는 부처의 씨앗이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 있다는 것을 설합니다.

▶ 씨앗이 햇빛과 물을 만나 씩을 틔우듯 행복의 씨앗은 불연을 만나 싹튼다고 부처는 가르칩니다.

행복을 간절히 기원하고, 최고로 행복해지는 가르침인 법화경을 전해주며,

“당신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반드시 누구보다 행복해져야 합니다”라고 진심으로 따뜻하게 격려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불연”이 됩니다.

▶ 불연을 만나게 된 사람이 법화경의 제목인 남묘호렌게쿄를 부르는 실천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크게 열고 숙명을 전환하여 행복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 지금까지 말씀 드린 불연을 맺으며 서로 격려하는 모임이 바로 SGI의 좌담회 입니다.

▶ SGI의 좌담회는 세대를 초월해 남녀노소가 한자리에서 ‘반드시 행복해 질 수 있다”고 서로 격려하는 대화의 장입니다.

작은 모임이므로, ‘한사람을 소중히’하는 SGI의 마음과 격려를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따뜻한 좌담회를 중심으로 SGI의 격려의 연대는 세계 192개국으로 넓혀져 전세계에서 SGI의 좌담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 좌담회는 무릎을 맞대고 앉아 행복 대화를 하는 격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장년부 삼총사 영광총회도 행복을 이야기하는 가슴 따뜻한 격려의 모임입니다.

▶ “격려”라는 한자를 보시면, “힘쓸 려” 글자에 녹색으로 “일만 만”, 붉은색으로 “힘력” 두 글자가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격려는 만의 힘, 모든 힘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 격려에 대해 이케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망적인 위기에 처해도 최후의 최후까지 ‘희망은 있다’고 믿는 것이다.

가슴속에 있는 희망은 무한하기 때문이다.

그 가슴속의 희망에 빛을 비추어 불타오르게 하는 것이 바로 따뜻한 격려가 아닐까

▶ 오늘 한 사람을 소중히 하는 격려에 대해 함께 보셨는데요, 이처럼 상대방에게 심장을 주는 듯한 진심을 다한 격려, 행복을 간절히 바라는 격려가 있는 SGI와 소중한 불연을 깊게 맺으셔서 반드시 행복한 인생의 꽃을 활짝 피우시기를 기원 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